

번호 I-4

제 목	국문	보육시설 아동의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연구				
	영문	A study on Accident Prevention of Child Care Center				
저 자 및 소 속	국문	백운미, 심은희 <sup>1</sup> , 사공화 <sup>2</sup> , 최병관 <sup>2</sup> , 배상수 한림대학교 사회의학연구소, 신구대학, 영등포 보건소				
	영문	YM Paek, EH Shim <sup>1</sup> , KW Sa <sup>2</sup> , BC Choi <sup>2</sup> , SS Bae Dept. of Social Medicine Hallym University, Shingu College <sup>1</sup> , Yongdungpo Health Center <sup>2</sup>				
분 야	보건관리 역학 환경	(○) ( ) (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	발표 형식	구 연 ( ) 포스터 (○)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1. 연구 목적

근대화와 산업화의 발달, 핵가족화 및 맞벌이 부부의 증가 등은 보육시설의 필요성을 증 가시키고있다. 가정보다 보육시설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영, 유아들의 경우 자기조정 능력 및 상황인식이 부족하여 안전사고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은 안전한 보육환경조성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영, 유아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1) 보육시설 내·외의 안전관리실태조사를 통해 안전사고발생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이를 개선하고 2) 보육시설 원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및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를 조사하여 보육시설 교사 및 영, 유아들의 안전사고 대처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바탕이 되어 영·유아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사고 발생건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 기대한다.

2. 연구 방법

서울시 영등포구에 위치한 보육시설 원장을 대상으로 1999년 10월 22일부터 11월 13일, 2000년 3월 15일부터 29일까지 두 번에 걸쳐 구립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및 놀이방 등 109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중복 응답한 2곳의 보육시설을 제외한 74곳의 자료를 분석하였다(회수율 70%).

설문조사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서, 첫 번째는 어린이집의 일반적인 현황, 보육시설 운영,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 교사대상 건강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영·유아 대상 건강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부모대상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총 3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는 어린이집의 안전관리실태 및 환경에 대한 7가지 항목으로 실내안전환경, 장난감과 놀이기구의 안전환경, 화장실 및 세면대 안전환경, 실외 안전환경, 특별활동시 안전환경, 차량안전환경 및 응급상황에 대한 준비환경 등을 조사하였다.

3. 연구 결과

1) 연구집단의 일반적 특성은 설립주체에 따라 국, 공립어린이집 32.4%, 민간어린이집 59.5%, 직장어린이집 2.7%, 기타 5.4%로 나타났고, 시설유형으로는 놀이방시설이 16.2%, 어린이집이 83.8%이었다. 보육시설의 입지조건은 단독주택지역과 아파트지역이 각각 40.9%와 22.7%이었고, 상가, 공장지역등과 같이 보육환경에 적합치 않은 지역에 위치한 시설도 34.8%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보육시설에 있는 아동은 총 2,815명으로 0-2세미만이 12.4%, 2-3세 21.1%, 3세이상이 66.5%로 나타났다.

2) 보육시설 원장 대상의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서는 안전에 대한 지식정도는 보통이다가 64.9%, 교사대상 안전교육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꼭 필요하다가 87.8%로 조사되었다.

안전교육실시시 꼭 참석하겠다는 81.1%, 안전교육 주관기관은 지역내 공공기관인 보건소나 구청 등이 주관해야 한다고 92.9%로 나타났다. 안전교육 횟수로는 6개월에 1회정도가 60%, 안전교육내용에 대한 우선 순위는 1순위가 응급처치교육(52.2%), 2순위가 소방교육 및 화재안전(18.8%), 3순위는 가정내 사고예방(10.1%)으로 나타났다. 영, 유아대상 안전교육에 대한 요구도 조사에서 유아대상 안전교육의 필요성은 꼭 필요하다는 75.3%, 영유아대상 안전교육 참석여부에 대하여는 꼭 참석시키겠다는 72.6%로 나타났다. 영, 유아대상 안전교육내용으로는 1순위가 응급처치교육, 2순위 어린이집 실, 내외의 안전, 3순위는 가정내 사고예방에 대한 교육 순이었다.

3) 보육시설의 실내환경 안전성평가 결과는 책상 등 가구의 모서리에 보호대가 없고, 문에 유아의 손이 끼이지 않도록 안전장치도 되어 있지 않고, 유리에 안전장치도 되어 있지 않으며, 창문이 완전히 열려 추락의 위험이 있는 보육시설이 많았다. 또 반 정도의 보육시설이 전기코드에 안전덮개가 없고, 난방기나 난로에 화상예방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4) 대부분의 보육시설에서 사용하는 장난감과 놀이기구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아이들이 입에 넣어도 되는 안전한 재질로 된 장난감을 사용하지 않거나 아이들이 입에 넣고 노는 장난감을 잘 소독하지 않고 다른 아이들이 같이 사용하는 보육시설이 20-30% 정도 있었다. 또한 질식을 유발할 수 있는 장난감을 잘 보관하지 않는 보육시설도 1/5정도 되었다.

5) 화장실과 세면대의 안전성문제는 수도에서 나오는 뜨거운 물에 의해 화상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보육시설이 있었고, 미끄럼방지 발판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아이들이 화장실의 바닥에 미끄러질 위험성도 많았다.

6) 보육시설의 안전성 평가항목중 실외환경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외환경의 안전성 여부를 묻는 대부분의 설문항목에 대해 응답자의 반 정도가 자기의 보육시설 환경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응답하였다. 안전에 문제가 있는 사항으로는 주변 도로의 안전시설이 취약하고, 놀이터의 놀이기구에 안전장치가 없거나, 유리조각 등의 위험물질이 방치되고 있었다. 또한 위험한 환경에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이 영유아들에게 구체적인 안전지침을 교육하지 않는 것도 문제로 나타났다.

7) 특별활동시의 안전성에 있어 약 1/3의 보육시설에서 수영장 안전조치가 미흡하였고, 캠프나 현장견학시 미아사고 발생에 대한 교육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차량을 운행하는 보육시설의 유아들중 안전벨트를 착용하는 경우는 20%에 불과하였다.

8) 교사들의 응급상태에 대한 대처능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줄 아는 교사가 있는 보육시설은 19.7%, 유아의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아는 교사는 46.6%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응급상황에 대한 대비책에 있어 화재시 탈출경로가 제시되어 있지 않다가 59.7%, 비상구를 쉽게 열 수 없는 보육시설도 30%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고찰**

현대의 급변하는 사회에서 아동의 양육문제는 가정과 사회의 공동책임이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보육시설 원장들로 해당보육시설의 안전관리실태를 자기보고 형식으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연구의 제한점을 가진다. 보다 타당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현재 영·유아 안전사고실태에 대한 학부모대상 설문조사 실시 및 전문가팀(유아교육전문가, 시설 및 건축물안전성평가요원, 법전문가, 간호사)을 구성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보육시설 안전관리실태조사, 보육시설내 유아안전사고에 대한 법 및 제도상의 문제점 파악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안 제시를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환경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보육시설종사자, 유아 및 학부모대상의 안전교육으로 여러 측면에서 사고발생가능성에 관한 자료수집 및 보육시설종사자와 학부모대상 요구도 조사를 통해 얻은 자료를 분석하여 안전교육자료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역 보육시설 환경의 위험요인을 파악함으로써 다른 유사한 지역의 보육시설 환경을 유추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평가자료로 사용될뿐 아니라, 보육시설 환경평가 도구로서 활용되어 지역보육시설의 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